

# 안행위 야, 국정원수사 축소·은폐 의혹 날선 추궁

## 산업위 골목상권 보호·동반성장 노력 '미흡' 질타

### 국감 현장

국회 국정감사 두 번째 날인 15일에도 여야는 정부를 상대로 정책 실패 등을 추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안전행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 골목상권 보호, 철도민영화 등을 놓고 정부를 압박했다.

◇안행위=이날 경찰청 국감에서 야당의 의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재차 날선 추궁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최근 국정원 사건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기소된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측이 수사 기밀인 검찰 지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데 대한 경찰 측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수사 기밀서류가 누출된 지 한 달여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경찰청은 해당 기밀서류의 제복조차 알아내지 못했다"며 "이는 김 전 청장이 스스로 법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형법 제127조에 따라 정식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대은 의원은 "김 전 서울청장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유가 적힌 문건 존재를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찰은 문건 유출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퇴임한 상태에서 감찰이 어렵다고 한다"며 "감찰은 경찰이 김 전 청장을 조직적으로 비호하려고 내부 문서를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감찰이 어려우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위=중소기업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기업과 정부에 대해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정수석 의원은 "대형마트·드럭스토어·다이소·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 탓에 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례로 "일부 대형 SSM인 '트라이얼코리아'와 '바로'가 현재 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3000㎡ 이하로만 운영해 출점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 902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다이소의 경우에도 "동네 슈퍼마켓의 주수익원인 식료품 판매를 늘리고 있어 골목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김용관, 국감증인 선서 또 거부

서를 하는 동안 선서거부를 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김용관(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은희(가운데)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저지했으나 실제 해당 시장에는 외국계 대기업의 진출이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재생타이어, 조경기구 시장 등의 피해가 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공공기관은 제품 구매 시 일정비율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연평균 22개 기관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이 공공 구매에 참여했다가 적발된 건수만 지난 3년간 191건에 달한다"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발 KTX 운영 법안 설립 등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토부의 용역보고서 자료를 인용, "국토부가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사발 KTX 운영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적 대안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단 수사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속도에 따른 요금등급제를 도입하고 1~2등급 열차의 요금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해놓고 대외적으로는 '경쟁을 도입하면 요금이 싸질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당장 중단하고 철도정책 전반을 국회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가 코레일에 유지보수 인력 10% 감축과 부족 인원 외주화를 제시했다면서 안전위협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위=병무청 국감에서는 각종 병역 회피를 위해 동원된 수법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팔미약을 눈에 발라서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 하는 등 각종 면탈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역 면제 사이트가 나온 방법으로 병무청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

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2011년 이후 지난 7월말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나 혼란소 미입소 등에 따른 병역 기피자가 2907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고아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1954명 가운데 5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해 면제를 받은 경우가 93.8%(183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시설에 들어갈 경우 부모나 부양가족이 없는 것과 달리 경제적 사유로 인해 등록했다가 퇴원 후 가족과 다시 살기 때문에 병역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양육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5~2012년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는 모두 1만820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재운 의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556명이 군미필 상태에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런 국감 왜 하나

호남·제주 4개 교육청 두시간만 하기로...결합기 불가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결합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 4곳에 대한 국감을 불과 두 시간만에 끝내기로 한 때문이다.

15일 광주·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이 오는 25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광주와 전남 교육청 2곳만 열었지만, 올해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광주·전남·전북·제주까지 4개 교육청을 한꺼번에 치르기로 했다. 일정도 오전 10시에 시작해 2시간만 예정돼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업무보고조차 생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 해당 지역 국립대학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과거와 달리 이 지역 시도교육청에 별

다른 이슈가 없는데다 내년 선거를 앞둔 임기 말 교육감들이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 4곳에 대한 국감을 불과 두 시간만에 끝내기로 한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수백 가지 자료 요청에 응대하기 위해 국감 자료를 챙기느라 일삼은 부조차 소홀할 지경이지만 정작 국감이 형식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교육청 간부들은 전북까지 오는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전남에 미리와야 할 형편이다.

교육단체의 우려와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정미경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사무국장은 "내년 선거를 코앞에 둔 교육감들이 만큼 오히려 문제점을 더 지적하고 현안들을 살펴봐야 하는데도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미래를 창조했더니 MOU만 창조하고 있다"

### "동양 사건은 경제민주화 역주행 만물백화점"

### 국감 말말말

(14~15일)

▲"미래를 창조했더니 MOU만 창조하고 있다. MOU의 뜻은 '무유하다'(민주당 전병헌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19개에 이르는 양해각서(MOU)만 체결했다고 지적하며)

▲"친일 미화 반대가 좌편향이나"(민주당 원익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드북에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란 문구를 붙인 것에 대응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좌편향·왜곡 교과서 검정취소'란 문구를 부착하자)

▲"지방자치단체는 은행을 털어서라도 세외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가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을 팔면 1kg당 2만원을 받을 수 있다"(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국회 안행위의 안행부 국감에서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실을 질타하며)

▲"박근혜정부 A부터 Z까지 전반적인 공약피기"(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전작권 전환,

북부기간 단축 등 대선공약을 모두 어겼다면서)

▲"박정희 정부때 확실히 해결지었다면 이 나이가 되도록 아우성치지는 않았죠. 따님이 대통령님 됐으니 같은 여성으로서 그냥 볼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으니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국회 외교통일외교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우하 사업은 완전범죄를 꿈꾼 대국민사기극"(민주당 박병계 의원,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우하 사업이었다고 지적하며)

▲"동양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가는 역주행의 만물백화점"(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국회 정부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동양그룹 부실 사태에 대해 질의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편성이라고 해서 종편이라고 한다"(민주당 전병헌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 종편이 사업계획과 달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기구)  
분양가액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영광  
어등산분리단지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출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함평군 영암 칠대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땅에는 소형APT나 다세대적합 10억5천
- 원로·다세대적합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1억6천
- 계림동 구호빌딩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육동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물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조선대학교 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용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3500만원선 수입예산,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법인이전23억
- 대인동 소방서 부근대교 상업지 694㎡(210) 건평158평 광주은행 본점부근 공시지가에 매도11억6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로·투룸·쓰리룸 927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지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중도에 슬로시티와 월드컵도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1억2900만원과 1억8500, 임대도 가능하며 조건은 조정함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5천에 월200선 임대, 분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임대·매매, 송촌동에 신축중인 기도건설의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탈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1월 말경,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지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기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합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선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복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하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